

보도시점 2024. 6. 27.(목) 11:00 배포 2024. 6. 27.(목) 8:30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기업지원 본격 착수

- 6.27일부터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신청 접수 시작
- 8월중 선정 마무리, 5조원 규모 공급망기금 등 중점 지원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 된다. 정부는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거나, 국내에 제조역량 확충 또는 수입 대체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등을 선도사업자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27일부터 한 달간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8월까지 선도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7.26일까지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면 된다.

선도사업자는 보통 3년,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지정되고 정부의 지원이 우선 제공된다. 금년 하반기에 출범하는 최대 5조원의 공급망 안정화기금이 선도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도입할 재정·금융·세제상의 우대 조치도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된다(구체적인 조치는 개별 사안별로 결정됨).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는 결국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민간과 소통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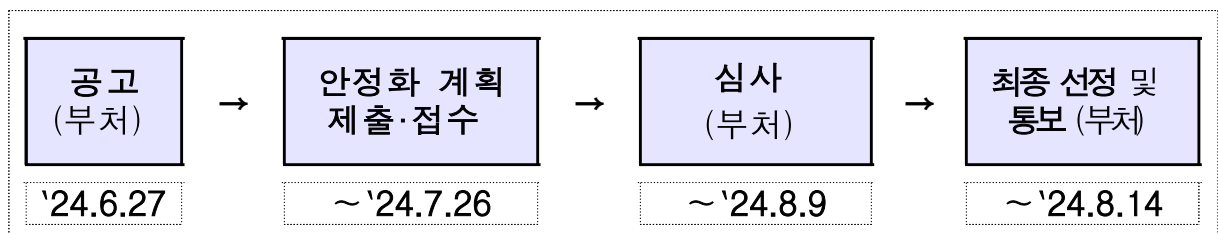
담당 부서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책임자	팀 장	김도익 (044-215-7880)
	공급망관리제도화팀	담당자	사무관	고상덕 (s9802102@korea.kr)

- ☐ **(신청기간)** '24.6.27(목) ~ '24.7.26.(금)
- ☐ **(선정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 ☐ **(선정방법)**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적격 여부를 판단

<선도사업자 선정 기준>

-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 ☐ **(선정 일정)**



- ☐ **(지정기간)** 3년 (다만, 소관 부처에서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
- ☐ **(선도사업자 지원)** 공급망안정화 기금 중점지원 + 정책지원
 - **(공급망 기금)** 선도사업자 우선·중점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 **(정책지원)** ①수입처 다변화, ②생산 확충, ③R&D, ④비축확대 관련 예산 지원, 세액감면, 금융지원* 등 ※ 지원 여부는 사업별 검토
- ☐ **(의무사항)** 자료제출 및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협조

	공급망 리스크	공급망 안정화 사업
원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특정 국가에 편중 · 특정 국가 및 기업이 전세계 주요 광산 개발권 보유 · 소수의 글로벌트레이딩 기업이 주요 원재료* 공급 장악 * 광물, 에너지, 곡물 등 	<p>(수입국 다변화) →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수입자금 지원</p> <p>(핵심광물 개발) → 핵심광물 개발 투자자금 지원</p> <p>(안정적 광물 확보) → 우리기업에 장기공급 조건부 사업자금 지원</p> <p>(핵심광물기업 인수 및 지분 취득) → 핵심광물보유 기업의 지분 취득자금 지원</p> <p>(안정적 원자재 확보) → 원자재를 국내기업에 장기간 공급하는 조건으로 글로벌트레이딩 기업에 대출</p>
↓		
소재·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정·제련 시설의 특정국가 집중화 * 배터리 핵심광물(니켈, 코발트, 리튬) 가공 소재 전량 수입 · 공급망 충격 발생에 대비하여 원재료 등 재고량을 비축하기 위한 인프라 부족 · 기술개발·취득 + 상용화·양산 관련 시장리스크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애로 	<p>(원자재·소재 가공 생산설비 투자) →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p> <p>(소재기업 인수 및 지분 취득) → 소재생산 기업의 지분 취득자금 지원</p> <p>(원재료 비축기지 확보) → 비축인프라 신·증축 시설자금 지원</p> <p>(기술개발 및 상용화) → R&D, M&A 등 자금 지원 → 상용화·양산을 위한 설비투자 자금 지원</p>
↓		
완성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 국내 협력사의 정치리스크 등 발생시 부품 납품 지연 · 핵심부품을 제작하는 외국기업의 국내진출 유인 제공 필요 	<p>(유턴 촉진) → 국내 유턴 협력사의 국내 정착자금(설비투자 등) 지원</p> <p>(프렌즈쇼어링 지원) →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자금 지원</p>
↓		
물류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기반(항만, 창고터미널 등) 확충을 통한 물류시스템 안정화 필요 	<p>(물류인프라 강화) → 국내외 항만·물류시설 건설 등 지원</p>
↓		
긴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난 발생 	<p>(긴급운영자금 지원) →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지원</p>